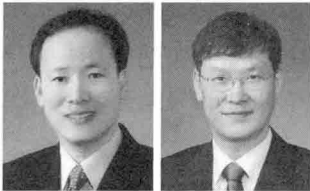


##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신임 이보균 사장 취임, 전 정확상 사장 카길사료 사업부 지역본부장으로 영전**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신임 사장으로 이보균 박사가 취임했다.

신임 이보균 사장은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를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동물영양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동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997년 퓨리나 반추동물연구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1년부터 퓨리나 기술연구소장, 카길동물영양 아시아기술이사를 역임했으며, 헬싱키대 국제경영MBA를 취득하였다. 2005년부터 1년여 중국 퓨리나 사료, 카길 사료사업 마케팅 이노베이션 담당 사장을, 2006년 12월부터 중국 청두 공장에 본부를 둔 중국 서부지구 사장을 역임했다.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6월 1일자로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사장으로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이보균 사장은 취임소감에서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40여년 한국의 축산업을 선도해왔으며, 역경 속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며 끊임없는 성장을 이룩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고객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경영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가치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사장은 취임 전 근무하던 중국 서부지구 사천성의 지진사태를 생각하며 “거대한 재난의 현장에서 직원과 고객을 대하며 책임감과 희망의 의미를 더욱 크게 깨닫

게 되었다”며 “희망으로 내일을 보고 책임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앞으로 우리축산 현장에서 마음으로 지켜야 할 소명”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동안 카길애그리퓨리나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였던 정확상 사장은 카길사료사업부 본사의 지역본부장(Area Supervisor)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동시에 카길사료사업부 리더십팀(최고경영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동안 카길애그리퓨리나에서 이룩한 괄목할만한 사업성과와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앞으로 한국과 그외 여러나라의 사업을 함께 맡아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상 사장은 “그동안 카길애그리퓨리나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룩한 성공에 힘입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성공적인 경험과 지식이 더 넓은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가는 기틀이 될 것”라고 말했다.

정확상 사장은 오는 8월 카길의 본사가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로 임지를 옮기게 된다.

## 우성사료

**우성사료 낙농 우수목장의 날 행사 실시**



구분(08년 5월 현재)	성광목장	검정평균	차이
유 량	32kg	30.4kg	+ 1.6 kg
유지율	4.37%	3.8%	+ 0.6%
체세포	124천	239천	- 115천
평균 유대단가/kg	743원	701원	+ 42원
년 착유사료비 공제수익	2억 1천만원	1억 7천만원	+ 4천만원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6월 11일 전북 임실군민회관에서 전북지역 낙농 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성광목장(대표 홍득표)은 전국 검정농가의 평균보다 높은 성적으로 고곡가 시대에도 경쟁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다. 성광목장의 홍득표 사장은 “낙농사업을 하면서 생산비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기 일수록 철저한 기록과 세심한 밀착관리를 통해 수익성 향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평균 45두를 착유하고 있는 성광목장의 지난 1년간의 성적은 평균유량 32kg, 유지율 4.37%, 체세포 124천이며 검정농가 평균 대비 성적이 높았으며 같은 두수를 기준으로 수익성 환산시 연간 4천만원의 추가수익을 보여주었다 (표참조).

성광목장이 이러한 성과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 첫째, 검정을 통한 지속적인 종축 개량과 모니터링,
- 둘째, 과학적이고 정밀한 사양관리
- 셋째, 번식 효율의 향상
- 넷째, 우성의 낙농 서비스(MMPHAL)를 적극 활용
- 다섯째, 젖소의 5대 기관을 튼실히 하는 오웰빙 사료와 우성낙농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평균

산차를 3산까지 끌어올리며, 번식간격 감축에 무엇보다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우성사료 박정근 축우부장은 고곡가 시대에 사료비 절감 방안으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최적의 배합비 설계로 사료의 허실을 막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성사료 홀스타인 비육우 생존전략 세미나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6월 5일 경기도 안성 소재 공전웨딩홀에서 이지역 육우 경영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스타인 비육우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 개방을 앞두고 있고, 생산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육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우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강에 나선 양운목 박사(우성사료 반추기축 연구원)는 “홀스타인 육우는 품질과 가격 면에서 한우와 수입육의 완충적 역할이 가능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며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22개월령까지는 사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예를 들며 “식품제조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화로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변훈중 부장(우성사료 축우 부장)은 육우의 등급향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며, 수익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기 출하를 금지 할 것과 출하체중의 대형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우성사료의 육우마루 고급육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한 4농가 145두의 출하 결과 1등급 이상 16%, 2등급 이상 70%로 '08년 전국거세평균 보다 1등급 이상 5%, 2등급 이상 23%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내려면 20개월 이상 사육과 철저한 바닥관리 및 충분한 건초 급여 등 사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성사료의 홀스타인 육우 고급육 전용사료인 “육우마루”는 비육장애 예방물질 첨가로 육우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비육장애를 최소화하며 반추위 환경 개선제 강 처방과 고급 에너지원 기용으로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시키며, 비타민E와 유기태 Se 첨가로 육색 보존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료이다.

#### 우성사료 더(THE)한우마루 실증소개회의 실시

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가 지난 6월 19일 전남 고흥군 소재 행복웨딩홀에서 이 지역 한우경영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급육 실증 소개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인 더한우마루를 급여한 류중원(전남 고흥군)사장의 출하성적이 소개되었으며 1등급 이상 90%, 1+등급 이상 65%로 행사에 참석한 한우 경영인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이러한 성적이라면 어떠한 수입육과 대적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윤지노 축우과장(우성사료)은 돈이 되는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심단면적을 넓히고, 근내지방도를 높이며, 체중을 대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한 혈통관리와 체중대별 급여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육질 초음파를 통해 선별 출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성사료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고흥지역 고급육 연구모임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곡가 시대에 농장의 수익향상을 위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주)